

茶山의 명판결과 조선의 법 풍속(16)

저주의 옥사



▶▶ 宥官을 벌인 무당(신운복)

다산은 백성을 위해 해독을 제거하는 일이야말로 목민관의 중요한 임무로, 당시 가장 큰 해독은 첫째가 도적이요, 둘째는 귀신, 셋째가 호랑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사라져야 백성들의 재앙이 없어질 것으로 보았다.

개성부 복덕 사건

다산은 세상 사람들이 평상시에 모여 한담할 적에 가장 무서운 것 세 가지 중에 무엇이 제일 무서우냐고 물어보면 의견이 각기 달라서 어떤 사람은 도적을 두려워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귀신이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호랑이를 두려워한다고 하지만 결국 이 세 가지가 백성들의 가장 큰 해독임을 알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다산은 귀신의 재앙이야말로 사람이 불러들여서 생기는 것으로, 잡스러운 당집과 요사한 무당들에 귀신이 의지해 빌붙기 때문에 귀신의 재앙을 없애기 위해서는 무당이나 흑세무민하는 요사한 것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시대에 많은 범죄들이 미신에 집착하거나 혹은 무당의 요언을 깊이 믿는 나머지 벌어졌다.

1775년(영조 51) 4월 개성부 사건도 그러한 사례 중 하나이다. 이 옥사는 한명주라는 부자가 복덕을 첩으로 들였는데 이후 한명주의 처와 아들, 그리고 손자가 연이어 병사하는 변고가 발생했다. 자신의 남편과 시어머니가 계속 사망하는 우환이 잇달자, 한명주의 며느리 김씨는 한편으로는 복덕이 무언가 저주했을지 모른다는 무당 노랑덕의 말에 홀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복덕이 낳은 자식들이 시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물려받을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세 명의 연이은 죽음을 복덕의 저주로 확신하고 말했다. 그리고는 시아버지 한명주를 부추겨 관아에 고발한 것이다. 저주의 무고를 받

은 복덕은 감옥에 갇혀 조사를 받았고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채 시일이 지체되면서 무려 10년의 혹독한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다.

정조의 해안

1784년(정조 8) 윤3월 정조는 사건이 발생한 지 9년 만에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첩 복덕의 혐의가 없음을 결정하였다. 당시 정조는 복덕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세 가지 이유 모두가 날조이거나 전연 근거가 없다고 비판하였다.

“살인 옥사에서 의심스러운 점이 어찌 한정이 있겠는가마는, 시장(屍帳)과 실인(實因)이 있다면 오히려 세심하게 조사할 수가 있지만 자취도 없고 전혀 잡히지도 않기가 이번 옥사처럼 심한 경우는 없었다. 이에 이름하여 ‘저주의 옥사’라고 하였으니 이른바 저주란 바로 당사자가 전혀 모르게 하고 날조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부녀자의 시기와 증오에서 시작되어, 무당이나 점쟁이의 거짓과 미혹이 더해지게 되자 침소봉대하여 의심스러운 것을 진실로 지목하고, 한 번 조사가 이루어지자 드디어 결정된 것처럼 되었다.

사실 복덕을 정범으로 단정 지은 이유는 세 가지이다. 하나는 만두에 독약을 넣은 것이며, 또 하나는 부엌 신(조왕)에게 소원을 빈 것이고, 마지막으로 여덟 군데 흉물을 묻은 것이다. 먼저 독을 넣었다는 문제를 살펴보자. 한명주의 공초 중에 ‘1773년 정초에 손자 복빈이 복덕을 보러 갔더니 복덕이 돌아왔야 절을 받지 않았다’고 하였다. 절을 하는데도 받지 않았다면 당연히 만두를 대접했을 리가 없고, 비록 먹었다고 내놓았다고 해도 복빈이 먹었을 리 만무하다. 더욱이 정월에 독약을 먹은 사람이 8월이 되어서야 죽을 리는 절대 없다.

둘째, 부엌 신에 빌었다는 말 역시 지극히 허밀하고 간특한 일이다. 복덕이 비록 매우 어리



글 김호 경인교대 사회교육과 교수 kimho@ginue.ac.kr 글쓴이는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졸업 후 동대학원에서 석사·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서울대 규장각 특별연구원, 가톨릭대학교 교양교육원 교수 등을 지냈다. 저서로 ‘허준의 동의보감 연구’, ‘조선의 명의를’, ‘조선과학인을 열전’ 등이 있다.



석다고 하더라도 캄캄한 밤중 아무도 안보는 곳에서 두 손으로 빌며 기도했다고 한다면 혹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며느리 김 씨가 듣고 보는 곳에서 합장하고서 소리 내어 빌었다는 말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다. 따라서 이 또한 터무니없는 말을 지어낸 데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집 안에 흉물을 묻었으며 호리병을 밟고 화살을 쏘았다는 말 또한 지극히 허황하고 요사스럽다. (중략) 흉물을 묻었다는 한 마디의 말을 살펴보면, 상을 당해 슬프고 두려워하는 상황인데 마침 집 안에서 흉물을 발견하여 파내었으니 그 어머니 아내의 마음에 죄인을 잡았다고 깊이 다행스럽게 여길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시아버지 한명주에게 보인 후 복덕의 죄를 드러내도록 한 후 상자에 깊이 감춰 두고서 증거물로 삼았을 게 이치 상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관할 필요가 없어 포구에서 던져버렸다'고 했으니 이 말을 누가 믿겠는가.

대체로 한명주란 자는 재산은 부유하나 나이는 칠팔십 노인이라 1771년에 홀아비가 된 후로 복덕과 비로소 같이 살게 되었는데, 한명주는 날로 노쇠하여 생각이 혼미해지고, 복덕은 자녀가 많아 적서 간에 틈이 생기기 쉬웠다. 한명주의 며느리와 손자며느리들은 혹 가정을 복덕에게 빼앗길까 염려하고, 재산을 받지 못할까 두려워 하루도 복덕을 꺼리지 않은 날이 없었다. 그런데 수년 동안 거듭해서 세 사람의 상사가 잇달아 발생하니, 새로운 슬픔과 오래된 감정이 쌓이고 쌓여 감당할 수가 없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한명주를 움직여 복덕을 제거할까' 하는 생각에 더욱 못할 짓이 없게 되었다. 이에 계책을 부려 '독을 넣었다'느니 '조왕신에게 절했다'느니 '흉물을 묻었다'느니 없는 사실을 꾸며대었으니, 50년이나 함께 한 한명주도 이 말에 미혹하여 관가에 고발하였던 것이다.

사건을 한번 훑어만 봐도 단서가 서로 틀리고, 더욱 천천히 고찰하면 왜 그런지 저간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으니, 본 사건을 꾸민 계략과 마음 씀씀이를 생각해 보면 교묘하고 참혹하기 그지없다. 죽을 나이가 다 된 80세 여인(복덕)을 지금까지 오랫동안 옥에 가두어 두고 갖가지 고문과 형벌을 가했으나 끝날 기약이 없다. 마침 이번 심리하는 날을 맞이하여 마땅히 사면하는 은전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복덕을 특별히 방면하고, 간련(사건 관련자)들은 범행이 비록 가볍고 무겁고 알고 깊고 얕지 않으나, 이미 옥 안을 뒤집은 후이니 사건을 오래 끌 수 없다. 관련자 가운데 이미 죽은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한 차례 엄하게 형신하여 징계한 후 방면하라."

편견과 무지의 폐해

다산은 당시 백성들의 무지와 편견을 비판하였다. "내가 생각해보건대, 소송을 결단하고 살육을 판단하는데 원래 세 가지 폐단이 있다. 먼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다투면 관은 반드시 시어머니를 의심하고 며느리에 너그러우며, 계모와 전처 아들이 다투게 되면 관은 반드시 계모를 미워하고 전실 자식을 가련히 여기며, 첩과 적처가 다투면 관은 반드시 첩을 얹어 넣고 적처가 원통하리라 생각한다. 무릇 옥사의 판결은 세상의 가장 공평한 일이다. '평(平)'이란 무엇인가? 바로 저울질이다. 그런데 먼저 하나의 저울을 마음속에 설치하였다면 어찌 공평할 수 있겠는가. 첩은 사실 바르지 못한 이름이다. 한번 오명을 얻게 되면 여럿이 들고 일어나 이를 기정사실화하니 대중의 분노를 어기면서까지 신원하기 어렵다.

말을 일삼는 자가 요사스런 첩이 독을 넣었다고 하면 믿지 않을 자 없으며, 또 요사스런 첩이 부엌신에 빌었다고 하면 믿지 않을 리 없고, 요사스런 첩이 흉악한 물건을 묻었다고 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을 수 없으니 이것이 바로 복덕이 옥에 갇혀 늙게 된 이유이다. 만일 임금의 밝음으로 비추지 않았다면 복덕이 어찌 살아남았겠는가.

내가 오랫동안 호남에 거주하여 익숙하게 남쪽지방의 풍속을 알고 있는데, 호남풍속에서는 무당을 좋아한다. 한번은 최고의 요망한 자가 스스로 신의 장군이라 칭하고 흉악한 물건을 묻어 둔 곳을 알아낸다면서 어느 구들 밑에 죽은 쥐의 사체가 있다 하고 아무개 부엌 옆에 썩은 고기가 있다면서 가르쳐 파내면 손가는 대로 나왔다. 이에 그 집 사람들이 부인과 여종을 의심하고 큰 오명을 뒤집어씌우게 되면 이웃들마저 모두 이를 믿고 의심치 않았다. 사실 죽은 쥐나 썩은 고기가 잘못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다. 하필 어떤 사람이 묻어서 그러하겠는가. 또 어떤 요망한 무당은 스스로 신령스런 의원을 자처하면서 사람의 배를 문지르고 갈빗대 아래 뼈가 걸렸다든지 위장 옆에 고깃덩이가 걸려 있다든지 하면서 이를 끌어내 토하고 목구멍으로 꼬집어내서 병을 치료했다고 하였다. 이 모두는 일종의 사람을 홀리는 요술이며 눈을 어지럽히는 기술이다. 따라서 쥐의 사체나 썩은 고기를 파내는 것도 사람을 홀리는 요술이요 눈속임이니 실제 이러한 물건이 있어 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무릇 저주하거나 흉물을 묻었다고 고발한다면 이러한 이치를 잘 알고 조사해야 할 것이다." ^①